

영아기 돌봄유형이 영아발달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정내 돌봄과 어린이집 돌봄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 상 설*

본 연구는 보육정책이 가진 아동 발달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돌봄의 유형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돌봄의 유형을 어린이집 돌봄, 가정내 양육으로 구분하고 이를 세분화하여 각 발달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한국아동패널 1-3차년도 자료를 활용, 발달 영역 별 중다회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의 이용이 영아의 운동기능 및 언어, 사회성의 모든 발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린이집 이용 시기에 따라서 각 발달 영역의 수준이 차이를 보였으며,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인종여부는 영아의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만 그 차이가 나타났다. 종합해 볼 때, 어린이집 이용이 영아의 발달 수준에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 평가인증 강화와 같은 서비스 질 제고 방안 역시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주제어(Key Words): 아동 발달(Child Development)

영아 돌봄(Infant Care)

돌봄 유형(Care Type)

I. 서론

영유아에 대한 보육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2009년 아이사랑플랜의 수립은 2012년 시작된 5세 누리과정과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 2013년의 ‘양육수당’의 전면도입 등의 정책적 변화를 수반하였으며, 국가의 돌봄에 대한 책임이 점차 공고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보육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강조는 보육정책의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제1저자, 교신저자(jamsujung@naver.com)

핵심 대상이 민간보육시설 위주의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전환시킴으로써, 직접적 서비스 수혜자로서의 아동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주요 초점 대상이 보육서비스의 직접적 수혜자인 ‘아동’이 아닌, 서비스가 제공되는 ‘가구(혹은 부모)’에 있어 왔다는 점에서 완성된 정책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부모 양육부담 완화라는 측면이 보육정책의 중요한 쟁점인 것은 분명하더라도, 최윤경, 이윤진, 김세현, 나지혜(2012)의 지적처럼 서비스 정책의 수혜주체인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 대한 고민이 배제된 정책은 그 효과의 적실성에 있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물론 아동발달에 대한 이슈 자체가 그간의 보육정책에서 전적으로 간과된 것은 아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수혜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촉진함은 주지의 사실이기에, 정부 역시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아동의 발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왔다. 보육인프라 구성에 초점을 둔 이전의 시점과는 달리, 2000년대 중반 이후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평가과정의 제도화, 특별활동에 대한 기준 도입, 표준보육과정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실시 등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완 장치가 마련되기도 했다.* 여기에 질 높은 영아 대상 프로그램을 위한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으며(이경례, 문혁준, 2013),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서문희, 김혜진,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신뢰성 있는 보육시설을 찾기 어려우며 동시에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은설, 안재진, 최윤경, 김의향, 양성은, 김문정, 2009)**. 그렇다면, 어린이집의 보육보다 가정내 양육이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이라는 부모들의 인식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보육서비스를 받은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과의 발달 수준에서의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본 연구의 초점은 위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의 모색에 있다. 보육서비스와 가정내 돌봄이 가진 질적 차이에 대한 규명은, 역으로 부모들의 양육방식의 선택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적 상황과는 별개로, 그동안의 아동 발달의 이슈는 주로 영유아의 개인적인 기질과 함께 부모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과 같은 영유아의 가정환경과 관련돼 있었다(김선희, 2000; Marshal, & Chassin, 2000). 특히 직접 영아와 마주하는 모의 심리적 특성에 주목하였는데, 모의 우울상태나 양육스트레스 등이 그 주된 설명변수로 연구되기도 했다(Mash, & Johnston, 1983; Belsky, 1984). 그러나 점차 영유아와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환경적 요소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기 시작

* 이명박 정부의 ‘아이사랑 플랜’의 3대 전략의 한 축에 ‘영유아 중심’이 자리 잡았으며, 세부 추진과제에도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균형 배치’,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등 아동 중심적 성격이 포함되기도 했다(보건복지부, 2009)

** 실제로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많은 부모들이 여전히 가정 내 양육을 선호하고 있으며, 2013년 보육·양육 무상지원의 결과로서 어린이집 이용률은 1.7%의 소폭 증가에 머무른 반면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0-5세에게 지원된 양육수당의 지급률은 무려 651%나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는 등(서문희, 최윤경, 김문정, 2011; 최상철, 홍경준, 2012; 보건복지부, 2013) 상당수의 부모들이 보육서비스 이용보다는 가정 내 양육을 선호하고 있다.

했으며(최경숙, 2000; Shaffer, 2002), 이러한 경향은 연령 초기의 아동발달과 환경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를 증가시켜 왔다(Andersson, 1992; Egeland, & Hieser, 1995; Broberg, Wessels, Lamb, & Hwang, 1997; NICHD Early Child Care Reserch Network, 2003, 2006; Love, Harrison, Sagi-Schwartz, Ijzendoorn, Ross, Ungerer, & Cohen, 2003; Bradley, & Vandell, 2007; Jacob, 2009; Lekhal, 2012).

이들 연구의 초점은 ‘이른 시기의 어린이집 이용이 영유아의 발달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가’ 혹은 ‘영아기의 어린이집 경험이 유아기에 발생하는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하는가’ 와 같은 초기 연령대의 환경과 아동발달의 관계성 규명에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환경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역설한 ‘생태학적 체계이론’ 이 위치해 있다. Bronfenbrenner(1979)는 발달의 개념을 인간이 자신의 환경을 지각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 정의하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태학적 환경(ecological environment)을 제시했다. 이 생태학적 환경은 개인을 포함하는 하나의 장(setting), 환경과 환경이 상호관련된 장, 개인이 존재하지 않는 거시적인 장, 문화권에 따른 상이한 상황 등으로 구분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가정, 어린이집, 놀이터와 같은 쉽게 마주대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장소로서의 미시체계(microsystem), 가정, 학교, 이웃, 동료 집단 사이의 관계와 같은 상호작용하는 미시체계로 구성된 중간체계(mesosystem), 개인이 속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과 영향을 주고받는 사건들이 포함되는 환경인 외체계(exosystem), 하위문화나 문화 전반의 수준에 존재하는 거시체계(macrosystem), 전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와 역사적인 환경을 포함하는 시간체계(chronosystem)로 표현된다. 이런 환경들은 아동을 둘러싼 직접적 환경은 물론 아동이 살아가는 시대나 장소의 문화적 환경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의 발달은 사회적/문화적인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중 영아기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아에게 지각된 현실(perceived reality)의 본질과 범위는 중요하며, 가까운 주변 환경인 소위 미시체계 속의 사건은 더욱 그러하다. 이런 영아기의 미시체계에서 지속적으로 인간의 발달에 종합적인 맥락을 제공해 주는 환경으로 ‘가정’ 과 ‘어린이집’ 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맥락은 아동기, 청년기, 그리고 생애에 걸친 발달과정에서 대조적인 일차적 환경이 발달에 끼치는 영향을 판가름해 볼 수 있게 해준다. 더욱이 장기간에 걸친 시간체계에서의 인간발달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현재의 사회정책이라는 외체계와 아동이 대면하는 미시체계와의 관계 규명은, 영유아의 발달을 간접적으로 유추하고 이를 이후의 발달 수준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실제로 영아기는 신체적,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는 단계로 발달의 기초를 이루는 결정적인 시기로서, 영아가 가장 먼저 그리고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돌봄의 환경이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지되기도 했다.

영아는 부모, 그 중에서도 주로 양육을 담당했던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생애 초기 주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영아와 모의 관계는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인지하게끔 하

고, 이런 주위와의 상호작용은 제 영역들의 발달을 자극하고 촉진하게 된다(Thelen, 1990; 임명희, 박운조, 2011). 수많은 발달심리학자들도 만 6세 이전에 발달이 모든 측면에서 그 기초가 형성된다는 것이 밝혀왔으며, 특히 영아기의 경험은 한 인간의 생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Katz, 1992). 또 다른 관점인 애착의 측면에서도(Bowlby, 1978), 반복되는 돌봄 환경의 변화는 유아로 하여금 새로운 관계형성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기존의 관계를 잃게 되는 스트레스를 산출하게 한다. 이는 풍부한 정서적 자원과 사회적 역량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환경적 맥락으로서의 돌봄 유형의 변화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부모와 자녀 간 애착관계의 연속성을 영아보육교사와 영아 사이에도 적용한 최근의 연구(김기철, 이선채, 2016; 신애선, 2017)들은, 영아교사와 영아 사이의 애착은 영아의 발달 수준에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부모 혹은 영아보육교사와 같은 주 양육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육기관 교사의 영향이 유아의 인지언어와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곽수란, 이진순, 2015)와 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연구(백지숙, 권은주, 2017) 역시 유아 시기에도 이러한 교사와 아이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수의 최근 연구는 이러한 돌봄 유형이 아동발달이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영유아기에 선택되는 양육 유형에 따라 이후의 아동의 발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Andersson, 1992; Clarke-Stewart, 1992; Egeland, & Hieser, 1995; NICHD, 1996; Bradley, & Vandell, 2007). 미국의 경우는 주로 조기의 보육기관 경험은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향이 지배적인 반면(Loeb, Bridges, Fuller, & Rumberger, 2007; Bradley, & Vandell, 2007; Jacob, 2009), 유럽의 경우 부모의 직접양육과 보육기관 사이의 차이가 없음을 지적하며 오히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경험한 아동의 경우 문제행동의 감소나 아동발달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Gupta, & Simonsen, 2010; Lekhal, 2012). 기존의 국내 아동발달 연구들은 주로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정 내 양육환경 특성, 즉 모의 특성, 가구의 특성, 사회적 관계 등을 아동발달에 미치는 주된 영향 요인으로 주목해 온 것이 사실이다(이경하, 서소정, 2009; 임순화, 박선희, 2010; 정미라, 권정운, 박수경, 2011; 김한나, 서소정, 2012; 오정순, 2012, 임현주, 최항준, 최선녀, 2012). 하지만 해외의 연구 경향과 유사하게, 영유아의 아동발달/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다양한 돌봄 유형이나 보육경험을 고려한 국내의 연구도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돌봄 유형에서의 연구는 보육시설 경험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고를 시작으로(김숙령, 1996; 현정환, 2003), 보육경험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효과(이영자, 이종숙, 이정옥, 1997; 조현희, 이귀옥, 1998; 장영은, 2016a), 보육경험과 유아의 인지 및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이기숙, 김영옥, 박경자, 2005; 남궁수진, 최영희, 2008; 곽수란, 이진순, 2015), 보육경험과 사회성 혹은 문제행동과의 관계(조혜진, 이기숙, 2004; 최미나, 신나나, 2015; 장영은, 2016b)같은 발달영역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런 연구들은 주로 보육의 경험과 영아발달과의 관련성을 분석할 수는 있으나, 다양한 돌봄형태 사이의 비교분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종합해보면, 조기의 보육시설 이용이 아동의 발달 혹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 연구가 제시한 결과는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상존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상이한 환경,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국가의 규제 수준, 돌봄서비스의 질의 차이, 가족이 가진 특징의 다양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기의 보육시설 이용의 효과는 맥락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loved et al., 2003). 하지만 상이한 결과의 원인인 다양성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또 다른 문제들이 연구수행에 있어서의 한계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단편적인 발달의 측면만을 강조하여 아동의 종합적인 발달상황을 짚어내지 못한 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만을 조사하여 보육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한 아동과의 비교가 불가능했다는 점, 특정 어린이집만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여 일반화하기 어려웠던 점 등은 분명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런 선행연구들의 한계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영아기의 돌봄 유형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여기에서의 주요 초점은 가정내 양육과 어린이집의 보육 사이의 비교가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돌봄 유형을 분류하여 ‘가정 내 돌봄’ 과 비가정 돌봄의 대표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의 ‘어린이집 돌봄’ 으로 분류하고 이런 유형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이후에는 돌봄유형을 세분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즉 영아기의 돌봄 유형을 ‘가정 내 돌봄’ 과 ‘어린이집 돌봄’ 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각각 어린이집 이용시기로 그리고 ‘인증어린이집 돌봄’ 과 ‘미인증어린이집 돌봄’ 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유형이 영아의 발달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는 아동을 돌보는 환경의 차이를 제외한 기존의 연구에서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던 모의 특성, 가구의 특성, 아동의 특성 등의 다양한 변인들이 통제될 것이다. 물론 영향요인으로서의 분류된 돌봄유형 간의 비교분석이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이 미시체계(microsystem)로서의 아동 돌봄 유형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봄유형과 아동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개괄적인 밑그림을 도출하는 데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영아와 그렇지 않은 영아의 발달 수준은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2. 어린이집의 이용시기에 따른 영아 발달 수준은 가정내 돌봄 영아와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3. 가정내 돌봄과 인증여부를 고려한 어린이집 돌봄 사이에 영아 발달 수준은 차이를 보이는가?

II.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분석 자료로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패널 1-3차년도(2008년-2010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2008년 출생한 전국의 신생아가 포함된 2,078 가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10년 3차년도 자료에는 1,802의 사례수가 포함되어 원표본 유지율은 83.8%였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은 표본가구에 속하는 만 1-2세의 영아로서, 결측치와 무응답을 제외한 총 1,362의 사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2. 변수 설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만 2세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발달, 인지언어 발달, 심리사회적 발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정옥분, 2012; Shaffer, 2002), 각각의 하위개념으로 종속변수를 구성했다. 즉 신체적 발달의 하나로서 ‘운동기능 발달’, 인지언어 발달 중에서 ‘언어적 발달’, 심리사회적 발달에서는 ‘사회성 발달’ 이라는 세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되었다. 아동 발달의 측정에 활용된 도구는 K-ASQ(Korean-Ages & Stage Questionnaires)로서, K-ASQ는 미국 Oregon 대학에서 개발된 60개월까지의 영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발달선별 검사인 ASQ의 2판을 한국 실정에 맞게 2006년에 표준화한 도구이다. 의사소통(communication), 대근육운동(gross motor), 소근육운동(fine motor), 문제해결(problem solving), 개인-사회성(personal-social)의 5가지 발달영역에 각 6개씩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모가 유아를 모니터링하여 작성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허계형, Squires, 이소영, 이준식, 2006). 5개 영역별 문항에 대하여 부모는 ‘예(영아가 행동을 수행할 때)’, ‘가끔(영아가 행동을 보이기 시작할 때)’, ‘아니오(영아가 아직 행동을 수행하지 못할 때)’ 세 가지로 응답하여, ‘예’는 10점, ‘가끔’은 5점, ‘아니오’는 0점으로 점수화되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아동발달의 핵심인 운동기능 발달,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이라는 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위의 5가지 발달 측정 영역 중 4가지를 선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즉 운동기능 발달은 대근육운동과 소근육운동의 12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투입하였으며, 언어 발달은 의사소통의 6문항의 총점수가, 사

회발달에는 개인-사회성의 6문항의 총점수가 투입되었다.

표 1.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측정(종속변수)

변수		변수 정의 및 측정	Cronbach's α
종속 변수	영아발달 수준	운동기능발달 대근육운동 + 소근육운동 총 12문항 점수의 총합	.586
		언어발달 의사소통 6문항 점수의 총합	.670
		사회성발달 개인-사회성 6문항 점수의 총합	.633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위계적으로 분류된 영아 돌봄 유형*으로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총 3가지로 구분하였다.

돌봄유형 I은 가정내 돌봄과 어린이집 돌봄으로 구분된다. 가정 내 돌봄은 3년을 지속적으로 가정 내에서 돌봄을 제공받은 영아를, 어린이집 돌봄은 3년 동안 한번 이상을 어린이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은 영아를 포함한다**. 돌봄유형 II는 돌봄유형 I의 ‘어린이집 돌봄’을 12개월 이전 시기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한 영아, 13-18개월 시기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한 영아, 19-24개월 시기부터 이용한 영아, 그리고 25개월 이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한 영아로 구분한 유형이다. 이 유형은 앞선 돌봄유형 I에서는 불가능했던 어린이집 이용시기에 따른 아동의 발달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돌봄유형 III은 횡단의 자료를 활용해 ‘가정 내 돌봄’과 ‘어린이집 돌봄’을 위계적으로 분류한 ‘가정내 돌봄’, ‘인증 어린이집 돌봄’, ‘미인증 어린이집 돌봄’으로 구성된다. 이는 각각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질을 통제하기 위한 분류방식으로 어린이집을 평가 인증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가정내 돌봄 유형과 비교할 수 있는 유형이다***. 이런 유형화는 돌봄유형의 종단적 변화에 따른 아동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돌봄 유형’이라는 용어는, 통계적인 기법이나 이론에 의한 유형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응답자의 돌봄 행위를 몇몇 기준에 의해 분류한 ‘집단’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 ‘가정내 돌봄’과 ‘어린이집 돌봄’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구분은 ‘낮 시간 동안의 주 양육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가정내 돌봄에는 부모의 돌봄은 물론 친인척, 조부모, 시장에서 구매한 개인대리양육에 의해 양육되는 영아를 포함하며, 비가정 돌봄은 어린이집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어린이집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영아를 포함한다. 개인대리양육과 어린이집의 돌봄서비스 모두를 제공받는 영아와 기타 선교원 등의 비가정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영아의 경우, 비가정 돌봄 중 어린이집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등으로 어린이집을 유형화 할 수 있으나, 이는 운영 주체라는 기준에 의한 기준일 뿐만 아니라 분석에 있어 복잡성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최상철, 홍경준(2012)의 연구에서와 같이, 어린이집이 일정 수준의 질을 담보하고 있다는 공적인 차원에서의 인정인 평가인증제를 그 분류 기준으로 정하였다.

발달 수준은 물론, 보다 세분화된 유형별로 아동발달의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데 그 강점이 있다.

표 2.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측정(독립변수)

변수	변수 정의 및 측정	비고
독립 변수	돌봄유형 I 가정내 돌봄(ref.)=1 어린이집 돌봄=2	범주형
	돌봄유형 II 가정내 돌봄 지속형(ref.)=1 0-12개월 시기부터 어린이집 이용=2 13-18개월 시기부터 어린이집 이용=3 19-24개월 시기부터 어린이집 이용=4 25개월 이후부터 어린이집 이용=5	범주형
	돌봄유형 III 가정내 돌봄(ref.)=1 인증어린이집=2 미인증어린이집=3	범주형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앞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구성했다. 이는 크게 아동 특성, 모 특성, 가구 특성으로 구분된다. 아동 특성으로는 아동 월령, 아동 성별, 출생 시 몸무게, 재태기간(gestational age), 기질이 포함되었으며, 모 특성에는 모 연령, 모 취업여부, 모 우울상태, 모 양육스트레스, 모 교육연수가 포함되었다. 영아 기질의 경우,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세 영역으로 나뉘어 측정되었으며, 정서성 5문항, 활동성 5문항, 사회성 10문항으로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는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몇몇의 문항은 문항의 질문 특성상 역코딩하여 합산하였다. 세 항목 모두 높은 점수는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이 보다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모의 취업여부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현재 휴직중이라면 취업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교육연수는 교육수준을 교육연수로 변환하여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가구 특성으로는 거주지역, 가구원 수, 월 소득, 가구형태가 투입된다. 월 소득은 자연로그를 취하였으며, 가구형태는 부모와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와 부모와 자녀 그리고 기타 친인척이 포함된 가구를 구분하여 투입하였다. 여기에 보다 2010년 발달점수예의 영향력 보다 정교하게 살피기 위해 0세에 측정된 영아 발달점수(2008년)를 추가로 계산하여 구성하였다.

* 영아 기질의 측정은 Buss와 Plomin이 개발한 부모평정형 EAS 기질척도를 활용했으며, 모의 우울상태와 양육스트레스는 각각 Kessler의 우울척도(K6)와 김기현과 강희경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Buss and Plomin(1984), Kessler(2002), 김기현, 강희경(1997)을 참조하라.

표 3.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측정(통제변수)

변수		변수 정의 및 측정	Cronbach's α
아동 특성	아동월령	영아의 월령	연속형
	아동성별	남아(ref.)=1 여아=2	범주형
	출생 시 체중	출생 당시의 체중	연속형
	재태기간	영아의 총 임신기간	연속형
	정서성	정서성 5문항 점수의 총점	.727
	기질	활동성 5문항 점수의 총점	.778
	사회성	사회성 10문항 점수의 총점	.843
통제 변수	연령	모의 연령	연속형
	취업여부	미취업(ref.)=1 취업=2	범주형
	우울상태	모의 우울척도 점수의 총합	.904
	양육 스트레스	모의 양육스트레스 점수의 총합	.865
	교육연수	교육수준을 연속변수로 변환	연속형
가구 특성	거주 지역	대도시(ref.)=1 중소도시=2 읍면지역=3	범주형
	가구원 수	부모와 영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	연속형
	가구 소득	가구원수로 균등화한 가구의 월 근로소득(자연로그)	연속형
	가구 형태	부모+자녀=1 부모+자녀+기타(친인척+조부모)=2	범주형
발달 점수	운동기능발달		.713
	언어발달	각 항목별 0세의 발달점수	.642
	사회성발달		.559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TATA 1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분석대상인 영아와 영아가 속한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기술적으로 파악하였다. 이후 각 변인의 신뢰도 및 적합도 지수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구해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돌봄 유형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인 및 독립변인별로 각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분석결과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독립변인과 통제변인을 중심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의 집단별 양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자료는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자료인 2010년의 변인들을 활용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1375)

변인		범주명	빈도(명)	비율(%)
월령		25개월 이상	1,124	81.75
		24개월 이하	251	18.25
		평균	25개월	
성별		남아	697	50.69
		여아	678	49.31
영아 특성	출생시 체중	2.5kg 이하	59	4.29
		2.5kg 초과 - 4.0kg 이하	1,269	92.29
		4.0kg 초과	47	3.42
		평균	3.25kg	
재태기간		260일 이상	1,321	96.07
		260일 미만	54	3.93
		평균	274일	
모 특성	연령	20세 - 29세	216	15.71
		30세 - 39세	1,109	80.65
		40세 이상	50	3.64
		평균	32세	
	취업여부	취업	401	29.16

	미취업	974	70.84
교육수준	고졸 이하	401	29.16
	초·대졸 이상	974	70.84
	중소도시	576	41.89
거주지역	대도시	535	38.91
	읍면지역	264	19.20
	3명	428	31.13
가구원수	4명	669	48.65
	5명	201	14.62
	6명 이상	77	5.60
	평균	3.97명	
	저소득층	82	5.96
가구소득	중산층	970	70.55
	고소득층	323	23.49
	평균	184만원	
	가구형태	부모 + 아동	1,224
	부모 + 아동 + 친인척/조부모	151	10.98

*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월 소득으로서, 범주는 중위소득 50%와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구분됨.

영아의 월령에서는 만 2세인 25개월 이상의 영아가 전체의 81.75%로 나타났으며 만 1세의 영아가 18.25%의 비중을 차지했다. 성별은 남아와 여아의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시 체중은 92.29%의 영아가 정상적인 범위라 할 수 있는 2.5kg에서 4.0kg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2.5kg이하와 4.0kg 초과는 각각 4.29%와 3.42%를 차지하였다. 영아의 재태기간은 260일 이상의 영아가 96.7%였으며, 임신 후 260일(37주) 이내에 태어난 아이의 비중은 3.93%였다. 모의 연령은 30대가 80.6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대(15.71%), 40대 이상(3.64%)의 순서로 그 비중이 작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대부분의 취업 여부에서는 취업한 모(29.16%)보다 미취업 상태의 모(70.84%)의 비중이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취업여부와 그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고졸이하가 29.16% 초·대졸 이상이 70.84%의 비율을 보였다. 영아의 거주지역은 중소도시와 대도시, 읍면지역의 비중이 각각 41.89%, 38.91%, 19.20%로 나타났다. 가구원수에서는 4명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거의 절반(48.65%)을 차지했으며, 3명

(31.13%), 5명(14.62), 6명이상(5.60%)의 순서로 그 비중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구소득의 결과를 통해서는 영아가 속한 가구의 약 6%정도가 저소득층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비중은 각각 70.55%와 23.49%였다. 부모와 영아로 이루어진 가구는 전체의 89.02%로 나타났으며 그 외 다른 가구원과 동거하는 가구의 형태는 10.98%에 불과했다.

2. 돌봄유형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돌봄유형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중다회귀분석은 3가지로 조작화된 독립변인으로서의 돌봄유형이 운동기능발달, 언어발달, 사회성발달이라는 각각의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독립변인이 범주형이기 때문에 분산분석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활용했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모형이 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잔차의 독립성과 다중공선성의 경우 문제가 없었으나,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발달선별검사의 성격에 기인해 그 분포가 부적 편포(negative skewed)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회귀분석이 가지는 오차항의 가정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였다. 종속변인이 가지고 있는 측정상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자연로그를 취하는 방법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나, 이분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선책으로 최소제곱(OLS) 방법으로 추정하되 표준오차를 수정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이는 왜곡이 발생하는 추정계수 표준오차에 수정을 가해 보다 적절한 값을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분산의 영향과는 무관하게(robust to disturbances that are heteroskedastic) 오차 추정이 가능하다(민인식, 최필선, 2009; Hoechle, 2007)**.

참고로 각 종속변수별 독립변수들의 요약치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영아 발달 영역 별 돌봄 유형의 요약치

독립 변인	언어발달		운동기능 발달		사회성 발달		N
	mean	SD	mean	SD	mean	SD	
0-2세 가정내 돌봄 지속	51.88	11.99	109.87	12.12	54.55	8.92	784
0-2세 어린이집 경험 有	54.20	9.75	111.98	10.82	55.42	8.17	578
0-2세 가정내 돌봄 지속	51.88	11.99	109.87	12.12	54.55	8.92	784
0-12개월 시기부터 어린이집이용	54.96	8.30	111.45	9.49	56.20	6.94	117

* 보육시설 경험 유무와 인종/미인종의 판별 과정에서 결측이 발생하여 기술분석보다 13사례가 제외되었다.

** 추정된 계수의 변화는 없으며 표준오차의 변화만 있어 검정력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13-18개월 시기부터 어린이집이용	55.30	8.13	113.11	9.85	54.61	8.57	114
19-24개월 시기부터 어린이집이용	53.37	10.83	111.41	11.95	55.35	8.45	300
25개월 이후부터 어린이집이용	54.89	9.35	114.15	7.89	55.85	8.23	47
0-2세 가정내 돌봄 지속	51.88	11.99	109.87	12.12	54.55	8.92	784
미인증 어린이집 이용	54.43	8.86	112.27	9.85	55.17	8.41	209
인증 어린이집 이용	54.06	10.24	111.81	11.34	55.56	8.04	369
전 체	52.86	11.15	110.76	11.62	54.92	8.62	1,362

1) 어린이집 서비스 경험 여부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영아의 어린이집 서비스 경험 여부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은 첫 번째 연구 문제인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영아와 그렇지 않은 영아의 발달 수준은 차이를 보이는가?’ 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으로,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어린이집 경험 여부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n=1,362)

변인	언어발달		운동기능 발달		사회성 발달		
	Coefficient (robust SE)	β	Coefficient (robust SE)	β	Coefficient (robust SE)	β	
독립 변인	0-2세 가정내 돌봄 지속(ref.)	-	-	-	-	-	
	0-2세 어린이집 경험 있음	2.28(.62) ^{***}	.10	2.28(.71) ^{**}	.10	1.27(.49) [*]	.07
아동 특성	아동월령	1.10(.22) ^{***}	.13	-.27(.25)	-.03	-1.56(.18) ^{***}	-.23
	아동성별(ref.=남아)	4.43(.58) ^{***}	.20	2.74(.64) ^{***}	.12	1.91(.46) ^{***}	.11
	출생 시 체중	.29(.79)	.01	-1.14(.83)	-.04	.16(.61)	.01
	재태기간	-.01(.03)	-.01	.02(.04)	.01	-.04(.03)	-.04
	기질(정서성)	.06(.10)	.02	.14(.12)	.04	.19(.08) [*]	.07
	기질(활동성)	-.10(.11)	-.03	.02(.13)	.01	.14(.10)	.05
	기질(사회성)	.24(.06) ^{***}	.12	.23(.07) ^{***}	.11	.03(.05)	.02
통제 변인	취업여부(ref.=취업)	.55(.69)	.02	.29(.77)	.01	.40(.57)	.02
	우울상태	-.05(.07)	-.02	.17(.09)	.06	.03(.07)	.02
모 특성	양육 스트레스	-.13(.04) ^{**}	-.08	-.11(.05) [*]	-.07	-.05(.04)	-.04
	모 연령(ref.=20대)	-	-	-	-	-	-
	30대	-.90(.78)	-.03	.28(.87)	.01	-.07(.59)	-.01
	40대 이상	.19(1.60)	.01	-.12(1.75)	-.01	-1.68(1.49)	-.04
	교육연수	.25(.15)	.05	.14(.16)	.02	.06(.12)	.01
가구	거주 지역(ref.=중소도시)	-	-	-	-	-	

특성	대도시	-1.34(.65)*	-.09	-.85(.68)	-.04	-.21(.51)	-.01
	농어촌	.06(.73)	.01	-.69(.88)	-.03	.81(.60)	.04
	가구원 수	-.83(.40)*	-.07	-.31(.44)	-.24	.25(.33)	.03
	가구 소득	1.76(.62)**	.08	-.02(.69)	-.01	-.01(.52)	-.01
	가구 형태(ref.=부모+아동)	1.22(1.12)	.03	1.97(1.14)	.05	.78(.88)	.03
발달 점수	언어발달(1차년도)	.08(.03)*	.06	-	-	-	-
	운동기능발달(1차년도)	-	-	.12(.03)***	.12	-	-
	사회성발달(1차년도)	-	-	-	-	.07(.03)*	.07
R ²		.126		.067		.091	
F		10.48***		4.51***		6.49***	

* $p < 0.05$ ** $p < 0.01$ *** $p < 0.001$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후 가정 내에서 돌봄을 제공받은 영아와 한 번이라도 어린이집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은 영아를 비교한 결과, 운동기능발달, 언어발달, 사회성발달 모두에 있어 어린이집의 서비스를 경험한 영아의 발달 수준이 그렇지 않은 영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시기 별 발달의 차이는 이어지는 다음 절의 회귀모형에서 분석하였다.

2) 어린이집 이용시기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두 번째 연구문제인 ‘어린이집의 이용 시기에 따라 영아 발달 수준은 차이를 보이는가?’ 를 검증하기 위해, 1절의 모형을 위계적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기별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7에 제시했다.

표 7.

어린이집 이용시기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n=1,362)

변인	언어발달		운동기능 발달		사회성 발달	
	Coefficient (robust SE)	β	Coefficient (robust SE)	β	Coefficient (robust SE)	β
0-2세 가정내 돌봄 지속(ref.)	-		-		-	
독립변인 0-12개월 시기부터 어린이집 이용	3.24(.99)**	.08	1.74(1.09)	.04	2.17(.79)**	.07
13-18개월 시기부터 어린이집 이용	3.13(.91)**	.08	3.02(1.08)**	.07	.35(.86)	.01
19-24개월 시기부터 어린이집 이용	1.87(.75)*	.07	1.75(.87)*	.06	1.04(.59)	.05
25개월 이후부터 어린이집 이용	1.47(1.32)	.02	4.36(1.28)**	.07	2.14(1.23)	.05
통제 특성 아동 아동월령	1.12(.23)***	.13	-.35(.26)	-.04	-1.58(.18)***	-.24
아동성별(ref.=남아)	4.39(.58)***	.20	2.68(.65)***	.12	1.86(.47)**	.10

	출생 시 체중	.26(.81)	.01	-1.22(.85)	-.04	.20(.62)	.01
	채태기간	-.01(.04)	-.01	.02(.04)	.01	-.04(.03)	-.04
	기질(정서성)	.07(.10)	.02	.14(.12)	.04	.17(.08)	.06
	기질(활동성)	-.10(.11)	-.03	.01(.13)	.01	.15(.10)	.05
	기질(사회성)	.24(.06) ^{***}	.12	.23(.07) ^{**}	.11	.04(.05)	.03
	취업여부(ref.=취업)	.87(.73)	.04	.18(.79)	.01	.47(.59)	.02
	우울상태	-.06(.08)	-.02	.17(.09)	.06	.02(.07)	.01
	양육 스트레스	-.13(.05) ^{**}	-.08	-.10(.05) [*]	-.06	-.05(.04)	-.04
변인	모 연령(ref.=20대)	-	-	-	-	-	-
	30대	-.87(.79)	-.03	.17(.88)	.01	.02(.60)	.01
	40대 이상	.28(1.66)	.01	-.18(1.81)	-.01	-1.39(1.49)	-.03
	교육연수	.28(.15)	.05	.14(.16)	.02	.06(.12)	.01
	거주 지역(ref.=중소도시)	-	-	-	-	-	-
	대도시	-1.41(.66) [*]	-.06	-.84(.89)	-.04	-.27(.52)	-.02
가구 특성	농어촌	.03(.74)	.01	-.81(.89)	-.03	.82(.61)	.04
	가구원 수	-.84(.40) [*]	-.07	-.30(.44)	-.02	.24(.33)	.03
	가구 소득	1.81(.64) ^{**}	.08	-.01(.71)	-.01	-.01(.52)	-.01
	가구 형태(ref.=부모+아동)	1.34(1.13)	.04	1.93(1.25)	.05	.80(.89)	.03
발달 점수	언어발달(1차년도)	.09(.04) [*]	.07	-	-	-	-
	운동기능발달(1차년도)	-	-	.12(.03) ^{***}	.13	-	-
	사회성발달(1차년도)	-	-	-	-	.08(.03) ^{**}	.07
	R^2	.127		.067		.094	
	F	8.23 ^{***}		11.33 ^{***}		5.81 ^{***}	

* $p<0.05$ ** $p<0.01$ *** $p<0.001$

언어 발달에서는 ‘1-12개월’, ‘13-18’, ‘19-24’ 개월 시기에 어린이집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영아들이 가정 내에서 돌봄을 제공받은 영아에 비해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운동기능발달에서는 1-12개월 사이에 어린이집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시작한 영아는 가정 내에서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돌봄을 제공받은 영아와 비교할 때 그 발달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13-18개월’, ‘19-24개월’, ‘25개월 이후’ 의 세 시기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한 영아는 가정 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은 영아에 비해 발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성 발달의 경우 운동기능 발달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즉 12개월 이전에 어린이집을 이용한 영아 집단만이 가정 내

에서 돌봄을 제공받은 영아에 비해 높은 발달 상태를 보였다. 이는 다른 발달영역과 달리 12개월 이전이라는 ‘이른 시기의 보육경험’ 만이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효과적임을 나타낸다.

3) 어린이집 평가인증 여부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본 절의 분석은 ‘가정내 돌봄과 인증여부를 고려한 어린이집 돌봄 사이에 영아 발달 수준은 차이를 보이는가?’ 라는 연구문제에 대한 검증을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의 돌봄서비스를 평가인증 여부에 따라 인증과 미인증으로 나누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을 기준으로 하여 횡단자료를 활용해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8로 제시했다.

표 8.

보육경험의 차이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 어린이집 인증여부 비교 (n=1,362)

변인	언어발달	운동기능 발달		사회성 발달			
		Coefficient (robust SE)	β	Coefficient (robust SE)	β	Coefficient (robust SE)	β
독립 변인	0-2세 가정내 돌봄 지속(ref.)	-		-		-	
	미인증 어린이집 이용	2.24(.75)**	.07	2.37(.84)**	.07	.97(.67)	.04
	인증 어린이집 이용	2.20(.72)**	.08	1.96(.82)*	.08	1.32(.55)*	.07
아동 특성	아동월령	1.12(.23)***	.13	-.26(.25)	-.03	-1.55(.18)***	-.24
	아동성별(ref.=남아)	4.48(.59)***	.20	2.77(.65)***	.12	1.92(.47)***	.11
	출생 시 체중	.35(.79)	.01	-1.11(.84)	-.04	.16(.61)	.01
	재태기간	-.01(.04)	-.01	.02(.04)	.02	-.04(.03)	-.04
	기질(정서성)	.06(.10)	.02	.15(.11)	.04	.19(.08)*	.07
	기질(활동성)	-.10(.12)	-.03	.03(.13)	.01	.14(.10)	.05
	기질(사회성)	.25(.06)***	.12	.23(.07)***	.11	.04(.05)	.02
통제 변인	취업여부(ref.=취업)	.52(.70)	.02	.21(.77)	.01	.39(.57)	.02
	우울상태	-.06(.08)	-.02	.17(.09)	.06	.03(.07)	.02
	양육 스트레스	-.13(.05)**	-.08	-.11(.05)*	-.06	-.05(.04)	-.04
	모 연령(ref.=20대)	-		-		-	
	30대	-.92(.79)	-.03	.25(.87)	.01	-.08(.59)	-.01
	40대 이상	.26(1.61)	.01	-.07(1.76)	-.01	-1.65(1.49)	-.04
	교육연수	.25(.15)	.05	.13(.16)	.02	.06(.12)	.01
가구 특성	거주 지역(ref.=중소도시)	-		-		-	
	대도시	-1.35(.66)*	-.06	-.86(.68)	-.03	-.24(.51)	-.01
	농어촌	.06(.73)	.01	-.69(.88)	-.02	.81(.61)	.04
	가구원 수	-.83(.40)*	-.07	-.30(.44)	-.02	.26(.33)	.03
	가구 소득	1.74(.63)**	.08	-.06(.69)	-.01	.01(.52)	.01

	가구 형태(ref.=부모+아동)	1.21(1.13)	.03	1.94(1.14)	.05	.77(.88)	.03
발달 접수	언어발달(1차년도)	.09(.04)*	.07	-	-	-	-
	운동기능발달(1차년도)	-	-	.12(.03)***	.12	-	-
	사회성발달(1차년도)	-	-	-	-	.08(.03)*	.73
	R^2	.126		.063		.091	
	F	10.48***		11.30***		6.19***	

* $p<0.05$ ** $p<0.01$ *** $p<0.001$

운동기능발달에서는 가정 내에서 돌봄을 제공받는 영아에 비해 인증/미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의 발달 수준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발달의 경우도 운동기능발달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는 다르게 사회성 발달에서는 인증어린이집의 서비스를 받는 영아의 경우 가정 내에서 돌봄을 제공받는 영아에 비해 발달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미인증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는 가정 내에서 돌봄을 제공받는 영아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IV. 논의 및 한계

본 연구는 국가의 보육정책이 저소득층 영유아나 취업여성의 양육 욕구에 대한 보충적 의미로서의 정부중심적 역할이나, 여성의 노동시장 증가에 따른 돌봄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부모중심적 역할에 치중해 온 것에 대한 반성적인 대안 혹은 보완으로서, 돌봄의 유형과 영아발달과의 관계규명을 통해 이동중심적 보육정책의 근거 마련을 위한 시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목표 의식 하에, 첫째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영아와 그렇지 않은 영아의 발달 수준은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어린이집의 이용 시기에 따라 영아 발달 수준은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가정내 돌봄과 인증여부를 고려한 어린이집 돌봄 사이에 영아 발달 수준은 차이를 보이는가?와 같은 세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자료 및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한계로 연구수행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영아 발달과 돌봄 유형 사이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내에서 돌봄을 제공받은 영아와 한 번이라도 어린이집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영아를 비교한 결과, 운동기능발달, 언어발달, 사회성 발달 모두에 있어 어린이집의 서비스를 경험한 영아의 발달 수준이 그렇지 않은 영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집의 서비스를 경험한 아이들의 발달 수준이 가정내 돌봄으로 양육된 아이들의 그것보다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들(Andersson, 1989; 1992; Clarke-Stewart, 1992; Broberg et al., 1997)과 언어발달 측면에서 긍정적이었다는 이영자 외 2인(199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다만 어린이집의 이용시기와 기간이 통제되지 않아, 단순히 어린이집의

경험이 영아의 높은 발달 수준을 담보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둘째, 어린이집 이용시기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각 기능 발달에서 상이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운동기능발달 영역은 생후 12개월 이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한 영아들이 가정 내에서 돌봄을 제공받는 영아에 비해 발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보통 12개월을 안팎으로 설 수 있으며 15개월경에 걸음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정혜옥, 이옥형, 2011; 정옥분, 2012),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기에 맞춰 보육시설과 같은 넓은 활동 공간의 확보가 영아의 운동기능의 발달에 중요하다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아 역시 실외활동 등의 경험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정할 수는 없다. 언어 발달에서는 생후 24개월 이전에 보육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한 영아들이 발달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생후 24개월 이전에 보육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한 영아들이 가정내에서 돌봄을 제공받은 영아들에 비해 언어 발달의 수준이 더 높다는 것으로, 생후 2년 이내에 시작된 교사와의 언어적 상호작용 경험이 언어발달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사회성 발달의 경우 12개월 이전에 어린이집을 이용한 영아들만이 가정 내에서 돌봄을 제공받은 영아에 비해 높은 발달 상태를 보였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보다 이른 시기에 보육을 경험한 영아는 주양육자인 모와의 격리에 더 쉽게 익숙해지며 모의 부재에 덜 동요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일찍 가지 수 있다는 지적(김숙령, 1996)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이는 보육시설의 질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정내 돌봄 영아와 어린이집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아를 인증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발달 수준을 비교한 분석결과는, 사회성 발달을 제외한 나머지 두 발달 수준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운동기능 발달과 언어발달의 경우,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인증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영아가 가정 내에서 돌봄을 제공받는 영아에 비해 높은 수준의 발달 수준을 보였다. 반면 사회성 발달에서는 어린이집의 인증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는 가정 내에서 돌봄을 제공받는 영아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어린이집의 이용이 아동의 운동기능 및 언어, 사회성의 모든 발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가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노력이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음은 물론, 현재 일각에서 언급되는 어린이집의 서비스의 불안감에 대한 의문부호에 대해 일정 부분 답변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각 발달영역의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아동 연령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시기를 각 아동들의 특정한 발달 수준에 맞춰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일부 분석결과는 평가인증 여부, 즉 보육시설 질에 따라 발달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영아의 발달에 긍정적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특히 일부의 결과는 인증보다 미인증 보육시설에서의 영아발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패널조사 당시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가진 놀이방과 같은 가정보육시설이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 미인

증으로 남아있던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진 한계 역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돌봄유형Ⅲ에서의 유형구분의 기준 중 어린이집의 질을 차이를 평가인증 여부로 구분하였는데, 평가인증만으로 어린이집의 질의 차이를 담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첫 번째이다. 두 번째는 영아가 이용한 어린이집의 특성이나 기관변경/중단 등의 세세한 변화를 탐지하지 못한 부분이다. 따라서 두 번째 실시된 회귀분석의 결과와 같이 영아 발달의 수준이 단순히 어린이집 이용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영아 시기의 발달을 조사한 대규모 패널자료가 현재 ‘아동패널’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5년이 경과한 자료를 활용하게 되었는데, 이는 현재의 정책/실천적 상황과 일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네 번째는 길지 않은 종단자료를 활용한 데 기인한 한계로, 영아기의 돌봄 유형에 따른 발달 수준을 25개월 무렵의 영아들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추후 국가가 가진 영유아에 대한 정보와 마이크로데이터가 공개되거나 보다 다양한 패널자료가 축적된다면,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연령의 시기별로 보다 상세히 비교·분석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돌봄 유형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과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돌봄이라는 두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다고는 하나, 어린이집의 유형 그리고 친인척, 조부모, 유급/무급의 돌보미와 같은 개인대리양육 사이에서의 편차를 구분해 내지 못한 개략적인 조작화의 시도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이어지는 후속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변동사항이나 세세한 보육유형의 변화를 포함시켜서 보다 정직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영아기 시점에 초점을 두고 발달 제 영역을 분석하여 영아 발달 전반에 대한 탐색을 시도할 수 있었으며, 영아기의 돌봄유형 집단 별 특성이 가지는 아동발달 과정에서의 효과를 대규모 패널자료를 통해 비교·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보육시설의 교사의 전문성이나 영아와의 관계 등을 통해 검증해 보고자 했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육시설이 일정 수준의 질을 담보하고 있다는 국가적 인정 수준으로의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곽수란, 이진순(2015). 유아기 사회성 및 인지·언어 발달 영향요인 분석. 한국보육학회지, 15(3), 265-291.

* 보육시설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질의 대리지표로서의 평가인증 제도는 꾸준히 개선되어 2009년까지의 평가인증률은 60.5%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 12월 현재 모든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비율은 80%,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은 90%를 상회하고 있고, 보육시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도 8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보육통계, 2010; 2016). 인증유지율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81.1%를 보이고 있다(한국보육진흥원, 2018).

- 김기철, 이선채(2016). 영아교사의 성인애착과 교사효능감 및 민감성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6(4), 201-226.
- 김기현, 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선희(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탐색.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숙령(1996). 영유아의 보육경험과 사회·정서적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재고(再考). 한국영유아보육학, 6, 23-56.
- 김은설 외(2009).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한나, 서소정(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애착과 영아 발달간의 관계연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매개효과 검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07-329.
- 남궁수진, 최영희(2008). 보육경험 및 보육의 질과 5세 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의 관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1), 45-54.
- 민인식, 최필선(2009). STATA 기초통계와 회귀분석. 서울: 한국STATA학회.
- 백지숙, 권은주(2017). 부모-유아 상호작용, 또래상호작용,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언어 및 문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7(2), 99-114.
- 보건복지부(2009). 아이사랑플랜.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0).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3). 2013년 3월 영유아 보육·양육 지원 현황.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보육통계(2010). 2010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 보육통계(2016). 2016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 서문희, 김혜진(2012).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 최윤경, 김문정(201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신애선(2017). 영아교사의 애착 및 영아의 몸짓과 영아 언어발달 간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7(4), 121-143.
- 오정순(2012).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 관련 특성을 중심으로. 생애학회지, 2(2), 51-65.
- 이경례, 문혁준(2013). 영아보육교사의 발달지식, 교사효능감, 전문성 지원환경이 전문성 발달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3(3), 163-182.
- 이경하, 서소정(2009). 영아 및 어머니의 사회인구적 특성 변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3), 87-102.
- 이기숙, 김영옥, 박경자(2005) 보육 경험과 유아의 인지 및 사회성 발달. 幼兒教育研究, 25(6), 255-276.
- 이영자, 이종숙, 이정옥(1997). 보육시설 경험이 1, 2, 3세아의 구어 및 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

- 유아보육학, 10, 31-74.
- 임명희, 박윤조(2011).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및 정서발달과 영아특성변인, 어머니특성변인 간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1(4), 57-82.
- 임순화, 박선희(2010).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수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영아의 표현어휘 발달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1), 251-278.
- 임현주, 최항준, 최선녀(2012). 친지의 사회적지원, 부부특성, 어머니의 양육특성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3(2), 91-109.
- 장영은(2016a). 생애 초기 보육경험과 만 4세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간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4), 1-19.
- 장영은(2016b). 유아기 어휘발달을 예측하는 보육경험 및 가정환경의 영향력: 소득수준에 따른 분석. 한국보육학회지, 16(3), 115-139.
- 정미라, 권정윤, 박수경(2011). 12개월 영아의 발달과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1(5), 371-389.
- 정옥분(2012). 영아 발달. 서울: 학지사.
- 정혜옥, 이옥형(2011). 영유아 발달의 이해. 서울: 집문당.
- 조현희, 이귀옥(1998). 보육 경험이 3-4세 아동의 언어 수행 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16, 173-192.
- 조혜진, 이기숙(2004). 유아의 사회, 정서발달에 미치는 가족특성, 보육경험 및 기질 변인 분석. 유아교육연구, 24(4), 263-285.
- 최경숙(2000). 발달심리학: 아동, 청소년기. 서울: 교문사.
- 최미나, 신나나(2015). 보육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2), 283-310.
- 최상설, 홍경준(2012). 아동돌봄 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영아기 돌봄유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9(3), 29-57.
- 최윤경, 이윤진, 김세현, 나지혜(2012). 아동발달관점에서 본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고찰: 스트레스호르몬 조사를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보육진흥원(2013). 인증통과 현황. <http://www.kcpi.or.kr>에서 2018. 1. 10일 인출.
- 허계형, Squires, J., 이소영, 이준식(2006). K-ASQ(한국형 Ages & Stages Questionnaires) 부모작성형 유아 모니터링 체계. 서울: 서울장애인증합복지관.
- 현정환(2003). 보육시설 보육경험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論考. 敎授論叢, 14, 581-606.
- Andersson, B. E.(1989). Effect of public day-care: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0(4), 857-866.

- Andersson, B. E.(1992). Effect of daycare on cognitive and socioemotional competence of thirteen-year old Swedish school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20-36.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owlby, J.(1978).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Vol.I.)* Middlesex, England, Penguin.
- Bradley, R. H., & Vandell, D. L.(2007). Child care the well-being of children.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61, 669-676.
- Broberg, G., Wessels, H., Lamb, M. E., & Hwang, C. P.(1997). Effects of daycare on the development of cognitive abilities in 8-year-olds: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3, 62-89.
-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uss, A. H., & Plomin, R.(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Clarke-Stewart, K. A.(1992). Consequence of child care-one more time: A rejoinder. In A. Booth(Ed.), *Child care in the 1990s trends and consequence*. NJ: Erlbaum.
- Egeland, B., & Hieser, M.(1995). The long-term consequences of infant day-care and mother-infa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6, 474-485.
- Gupta, N. D., & Simonsen, M.(2010). Non-cognitive child outcomes and universal high quality child car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4, 30-43.
- Hoehle, D.(2007). Robust standard errors for panel regressions with cross-sectional dependence. *The Stata Journal*, 7(3), 281-312.
- Jacob, J. I.(2009). The socio-emotional effects of non-maternal childcare on children in the USA: A critical review of recent studie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9, 559-570.
- Katz, L. G.(1992). Early childhood programs: Multiple perspectives on quality. *Childhood Education*, 69(2), 66-71.
- Kessler, R. C. et al.(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Lekhal, R.(2012). Do type of childcare and age of entry predict behavior problems during early childhood? Results from a large Norwegian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6(3), 197-204.
- Loeb, S. et al.(2007). How much is too much? The influence of preschool centers on children'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6, 52-66.

- Love, J., & M, et al.(2003). Child care quality matters: How conclusions may vary with context. *Child Development*, 74, 1021-1033.
- Marshal, M., & Chassin, L.(2000). Peer influence on adolescent alcohol use: The moderating of parental support and discipline.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4(2), 80-89.
- Mash, E. J., & Johnston, C.(1983).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elf-esteem, and mother's reported stress in younger and older hyperactive and normal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86-99.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1996). Characteristics of infant child care factors: Contributing to positive caregiving.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1(3), 269-306.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2003). Does quality of childcare affect child outcomes at age 4X1/2? *Developmental Psychology*, 39, 451-469.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2006). Child-care effect sizes for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61, 99-116.
- Shaffer, D. R.(2002).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CA: Wadsworth Thomson Learning.
- Thelen, E.(1990). Dynamical systems and the generation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J. Colombo & J. Fagen(Eds.),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cy: Reliability, stability, prediction*. N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Abstract

The Impact of Child Care Type on Infant's Developmental Outcome: Focusing on the Care Type of at Home Nurturing and Daycare Center

Choi, Sang Seol

(Dept of. Social Welfare, Sung Kyun 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hild care type on infant's developmental outcomes assessed by K-ASQ, focusing on the child-centric role of nurture policy. For this, this study categorized child care type into types including home nurturing, child care center, and subtypes of each category. The finding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first-third wave data of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PSKC) are as follows.

First, the child care center experience had rather positive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all abilities in the infants comparing to home nurturing. Second, the time of attending child care center was different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motor, communication, and personal-social skill in infancy. Finally, the accreditation of child care showed a difference only in terms of social development of infants. In conclusion, even if the experience of using child care center has positive impact on infant's developmental level, it is still in need of improving service quality such as reinforcing accreditation system.